

---

#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방안에 따른 연구용역 해외사례 조사보고

---

2016. 1.

관광사회문화연구부 신동일, 최영근



# I. 출장 개요

## 1.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간 1,30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영관광지 다수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료관광지 35개소 중에서도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 10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광지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경영개선이 시급함
- 공공시설물의 공익기능 수행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방지 등을 이유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용료 산정 노력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 공영관광지 운영활성화 및 요금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자 부담원칙을 통한 비용·편익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자주 재원을 확보하데 있음

## 2. 목적

- 수집된 오키나와의 공영관광지 요금 및 운영 정보를 통해 제주지역 공영관광지의 요금현실화 방안 마련 및 발전적 운영관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사점 및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3. 일정 및 대상

- 출장기간 : 2015. 1. 14 ~ 1. 16(2박 3일)
- 출장지역 : 일본 오키나와
- 출장자

| 소속      | 출장자        |
|---------|------------|
| 제주발전연구원 | 신동일 연구위원   |
| 제주발전연구원 |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

○ 세부일정

| 일시          | 시간             | 세부일정   |
|-------------|----------------|--|
| 1.14<br>(목) | 08:00<br>12:45 | 제주공항 출발<br>부산 경유 일본 오키나와 도착<br>구 해군사령부호 방문<br>슈리성 방문 |
| 1.15<br>(금) | 08:00<br>18:30 | 만좌모, 해중전망탑, 해양엑스포공원(츄라우미 수족관), 코우리<br>오션 타워 방문       |
| 1.16<br>(토) | 14:35<br>18:55 | 평화기념공원 방문<br>일본 오키나와 출발<br>부산을 거쳐 제주도착               |

## II. 주요 내용

### 1. 오키나와 개요



자료 : <http://kr.japan-guide.com/travel/okinawa>

- 오키나와현은 일본 최남단에 있는 현이며, 오키나와 섬을 시작으로 류큐 제도를 포함. 현청 소재지는 나하 시(那覇市)임
  - 인구 142.3만 명(2012년 3월 1일 기준), 면적은 2,271km<sup>2</sup>으로 제주도의 1.2배에 달함
- 난세이 제도(南西諸島), 류큐 제도(琉球諸島) 가운데에 있는 섬 이름으로 일본 오키나와현에 소속돼 있음. 간단히 오키나와섬(沖繩島)이라고 함

- 오키나와현 안에서는 그냥 본도(本島, 혼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음
- 오키나와현민(縣民)의 절대 다수가 이 섬에 몰려 살고 있음
- 기후는 야에야마 제도에선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이상 되는 열대 기후이며, 다른 지역은 온대 기후를 보임
- 옛날의 오키나와는 류큐 국왕이 지배하는 독립국으로서 아시아의 대국 중국을 비롯하여 인근 제국과의 무역을 전개하며 발전하였으며, 1609년 사쓰마의 침입을 받아 일본의 막부 체제에 편속되었다가 1879년의 일본의 한 현이 되었음
- 태평양전쟁 시에는 주민을 말려들게 한 국내 유일한 지상전의 장소가 되었고, 전후부터는 미국의 시정권 하에 놓였으나, 1972년에 일본 복귀를 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등 특이한 길을 걸어옴
  -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군이 점령한 이후 1972년까지 이른바 오키나와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의 통치를 받음. 미군의 일본 복귀 후에도 미군 기지가 상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오키나와현의 중요한 현안 문제로 남아 있음
- 오키나와현은 일본에서 유일한 아열대 지역에 속하여 산호초의 바다와 얀 바루쿠이나나 이리오모테야마네코(살팽이) 등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 슈리조 성터와 나카구스쿠 성터 등 9곳이 ‘류큐왕국의 구스크 및 관련 유산군’으로 세계유산에 등록되었음
  - 특히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수지역의 하나이며 그 장수를 떠받쳐온 요인으로서 온난한 기후, 너그러운 현민성과 유이마루(상부상조)의 정신, 그리고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가 있음
- 오키나와의 관광은 세 가지의 키워드로 분류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독립국이었던 박제화된 류큐왕국으로서의 문화, 두 번째는 미군정시기를 거치면서 강하게 남아있는 미국문화의 영향, 세 번째는 츠라우미 수족관으로 대표되는 바다와 아열대풍경이 있음

## 2. 방문 관광지

### 1) 구 해군사령부호(구 해군사령부 방공호, 병커)



### (1) 운영현황

- 소재지 : 일본 오키나와현 토미구스쿠시(豊見城市) 토미구스쿠(豊見城) 236
- 영업시간 : 7월~9월 8:00~17:30, 10월~6월 8:30~17:00
- 정기휴일 : 연중무휴
- 입장료 : 어른 420엔, 소인 210엔/(단체) 어른 380엔, 소인 180엔
- 전화번호 : 098-850-4055

### (2) 개요

- 구 해군사령부 병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으로 남아 있으며, 항구적인 평화를 기원하는 전쟁 유적시설로써 그리고 평화학습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시설임
  - 구 해군사령부 호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주민을 휩쓸리게 한 지상전이 열린 오키나와 전의 일본 해군 오키나와 방면 근거지 군단 사령부가 있던 곳으로, 그 일부가 현재 공개되고 있음
  - 병커 안은 마치 미로처럼 당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으며, 자료관도 병설되어 있음
  - 병설 자료관에서는 병커에서 발견된 유품과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음
- 공항이나 나하 시내로부터 가까운 전쟁유적지이며 풍경이 수려한 장소에 위치해 게라마제도나 나하 시내가 한눈에 들어옴

### (3) 특징

- 태평양전쟁 말기에 있었던 오키나와전에서 구 일본해군 오키나와방면 근거지 부대의 사령부가 설치한 지하방공호. 당시 방공호의 총길이는 450m로 현재는 275m을 공개하고 있음
- 방공호 내부에서 사령관 등 약 4,000명의 병사가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며

지금도 자결할 때 생긴 수류탄 흔적 등이 생생하게 남아 있음

<표 1> 구 해군사령부호 이용객 현황(2010년 이후)

(단위; 명)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이용객 수 | 165,714 | 171,515 | 177,139 | 172,496 |

자료 : 오키나와현 내부자료

## 2) 슈리성(류큐왕국 영화의 발자취)



### (1) 운영현황

- 소재지 : 오키나와현 슈리(현재의 나하 시의 일부)에 위치
- 규모 : 도서 400m, 남북 200m
- 구조 : 화강암 재질의 성벽과 왕이 머문 곳은 목조 2층
- 입장료 : 800엔
- 개장시간 : 4~6월 08:30~19:30/7~9월 08:30~20:30/10~3월 08:30~18:30

### (2) 개요

- 슈리성은 오키나와의 옛 왕국 이름인 류큐왕국의 중심지로 여러 번의 왕위쟁탈과 화재 등으로 상처를 입었던 슈리성은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소실되었으나 1992년 11월 3일 일부가 슈리성 공원으로 복원되었음
- 수많은 풍파와 아픔을 견뎌낸 결과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

- 옛 류큐왕국의 거성터인 슈리성은 창건연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제 1쇼씨가 류큐를 통일한 이후에 왕성으로 확립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음
  - 그 후 제 2쇼씨인 쇼신왕에 의해 확장, 정비되어 지금의 슈리성 형태가 확립됨
- 슈리성은 민속촌에 해당하는 류큐무리와 함께 오키나와 관광의 주요 코스로 활용

(3) 특징

- 오키나와의 주요 관광명소 중 하나로 슈리성은 14세기 말 건설되었으며 중국과 일본의 축성문화의 혼합체라고 할 수 있음
  - 류큐왕국은 일본 본토와 달리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다양한 문화를 이곳의 실정에 맞게 재창조함
- 건물에는 중국, 일본, 류큐 각각의 건축 양식이 모두 담겨 있음
- 온통 붉은 색의 건물, 돌담 등 슈리성만의 독특한 색채와 건축양식을 보면, 오키나와가 과거에 확실히 일본과는 별개의 독립된 왕국으로서 존재했다는 것이 실감남

<표 2> 슈리성 이용객 현황(2010년 이후)

(단위; 명)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슈리성 지구 방문객 수 | 2,083,177 | 2,019,762 | 2,173,243 | 2,311,807 |
| 슈리성 내부 입관객 수 | 1,762,402 | 1,621,118 | 1,747,660 | 1,725,453 |

자료 : 오키나와현 내부자료

3) 만좌모



(1) 운영현황

- 오키나와 방문 관광객의 필수 방문 코스임

(2) 개요

- 코끼리의 얼굴을 닮은 모양의 절벽은 침식된 류큐 석회암의 단애와 그 위에 만 명이 앉아도 충분한 넓은 벌판이라는 뜻의 ‘만좌모’ 임
- 18세기 류큐왕국의 쇼케이 왕이 ‘만 명이 앉아도 충분한 벌판’이라고 한 것에서 명칭이 유래됨
- 잔디 밑으로 마치 코끼리의 옆모습을 닮은 석회암 절벽이 깎아지른 듯 서서 아래의 푸른 바다와 생생한 콘트라스트를 이루는 광경이 가히 오키나와 제일의 절경중의 하나임

(3) 특징

- 만좌모는 코끼리 형상을 한 기이한 석회암 절벽과 오키나와 특유의 맑고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오키나와 최고의 절경 중 하나임
- 우리나라의 드라마 촬영지로도 자주 등장함
- 무료 관람이며, 주차장 시설이 부족함

4) 해중전망탑(부세나 해중공원)





(1) 운영현황

○ 주소 : 일본 오키나와현 나고시(名護市) 키세(喜瀬) 1744-1

○ 영업시간 : 해중 전망 하계4월~10월 9:00~18:00

※ 5월~8월은 19:00까지 연장(최종입장 18:30)

○ 요금

- 해중전망탑 : 어른 1,030엔,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820엔, 어린이 520엔
- 유리바닥 보트(글라스 보트) : 어른 1,540엔,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1,230엔, 어린이 770엔
- 세트 요금
- 유리바닥 보트+해중전망탑 : 어른 2,060엔,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1,650엔, 어린이 1,030엔
- 소요시간 : 보트·전망탑을 이용한 경우 소요시간은 1시간~1시간30분



자료 : <http://www.busena-marinepark.com/korea/>

(2) 개요

- 오키나와현 북부 부세나미사키 앞바다 높은 투명도로 유명한 오키나와 북부의 부세나 곳, 거기에서 이어진 170m의 다리의 끝에 있는 것이 오키나와에서 유일한 해중 전망탑임
- 용궁처럼 선명한 바다의 풍경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해중 전망탑’ 나선형 계단을 내려간 수심 약 5m의 전망 층에는 360도의 둥근 창이 설치되어 오키나와의 자연의 바다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음
  - 이곳은 그야말로 열대어들과 함께하는 마음의 낙원임

(3) 특징

- 인접한 산교에서는 독특한 고래 형의 유리 바닥 보트도 운항하고 있어 바닷바람을 느끼면서 하는 해중 산책이 으뜸. 배 밑바닥의 유리면을 들여다보면 투명한 바다와 금방이라도 손이 닿을 것 같은 물고기들로 아이들에게 대인기임
  - 20분 간격의 정시 운항에 소요시간은 약 20분이므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음

<표 3> 부세나 해중공원 이용객 현황(2010년 이후)

(단위; 명)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이용객 수 | 212,960 | 222,075 | 240,328 | 277,757 |

자료 : 오키나와현 내부자료

5) 해양박람회지구(츄라우미 수족관)

| 入館料金      |        |               |                    |
|-----------|--------|---------------|--------------------|
|           | 一般料金   | 団体<br>(20名以上) | 年間パスポート<br>(1年間有効) |
| 大人        | ¥1,850 | ¥1,480        | ¥3,700             |
| 中人(高校生)   | ¥1,230 | ¥980          | ¥2,460             |
| 小人(小・中学生) | ¥610   | ¥490          | ¥1,220             |
| 6歳未満      | 無料     |               |                    |

チケット販売終了：閉館1時間前



### (1) 운영현황

- 대지/건축/바닥면적 : 230천평/3천평/5.7천평
- 수조규모 : 77개 수조, 메인(흑조의 바다) 7,500톤
  - \* 세계최대 아크릴 수족관창(가로 22.5m×세로 8.2m×두께 0.6m)으로 기네스북 등재
- 보유어종 : 800종 2만마리(고래상어, 만타가오리, 산호초 등)
- 설치년도 : 엑스포기념공원으로 1975년 수족 설치(2002년 확장)
- 공사비 : 1,900억원(국가직접개발 후 민간위탁)
- 개장 시간 : 하절기 08:30~20:00(마지막 입장 19:00)/동절기 08:30~18:30(마지막 입장 17:30)
- 입장료 : 어른 1,850엔/고등학생 1,230엔/초중학생 610엔/6세 미만 무료
  - ※ 연간입장권 : 어른 3,700엔/고등학생 2,460엔/초중학생 1,220엔
  - 오후 4시 이후 티켓 : 어른 1,290엔/고등학생 860엔/초중학생 430엔
  - 휴관일 : 12월 첫 번째 주 수요일과 그 다음날
- 오키나와 방문객의 50%인 연간 300만명이 관람하고 있으며, 연간 500억원의 수입을 올려 운영비를 제외하고 연간 30억원 순이익 발생

### (2) 개요

-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유명한 관광지로 건축면적 약 10,000제곱미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족관인 류라우미 수족관은 해양박람회기념공원 내에 있는 수족관으로 세계 최초로 무시무시한 크기의 고래상어, 대형 쥐가오리, 사호를 대규모로 사육하고 전시하고 있음
  - 수족관으로 들어서면 온 몸을 압도하는 거대한 수조에 둘러싸여 마치 바다 속에 들어온 듯한 생생한 느낌을 받게 됨

(3) 특징

- 생물다양성 확보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산호초, 대형어종(고래상어, 만타가오리), 심해어종, 민물어종 등 오키나와 근해 어종만으로 전시
  - 1975년부터 스타생물 번식 목표로 사육·전시, 수족관 전시생물 보충 및 연구를 위해 근해 가두리 양식장 병행 운영
- 자연광이 내리쬐는 산호와 열대어의 수조, 고래상어와 쥐가오리 등이 떼지어 헤엄치는 「흑조의 바다」, 신비로운 심해까지, 오키나와의 바다에 다이빙하는 느낌으로 견학할 수 있고, 세계 최대급의 아크릴패널 너머에서 보는 세계 최초의 고래상어와 쥐가오리의 다양한 사육 등을 볼 수 있음

<표 4> 해양박람회지구 이용객 현황(2010년 이후)

(단위; 명)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박람회 지구 방문객 수   | 3,453,151 | 3,391,223 | 3,615,981 | 4,048,576 |
| 츄라우미 수족관 입관객 수 | 2,835,433 | 2,643,558 | 2,772,586 | 2,997,423 |

자료 : 오키나와현 내부자료

6) 코우리 오션 타워(사랑의 섬에서 보는 경치는 마음을 울리는 절경!)



(1) 운영현황

- 소재지 : 오키나와현 쿠니가미주 나기진마을 코우리 538(☎ 0980-56-1616)
- 영업시간 : 09:00~18:00
- 정기휴일 : 연중무휴
- 입장료 : 성인 800엔/중인(중고등학생) 600엔, 소인(초등학생) 300엔, 초등학생 미만은 무료, 단체 20명 이상 15%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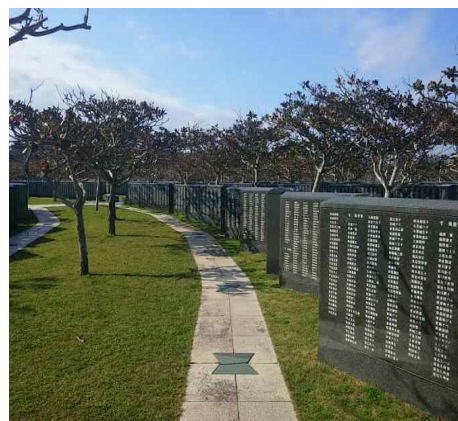
(2) 개요

- 자동으로 움직이는 카트를 타고 사랑의 섬의 안내를 들으며, 1만점 이상의 세계의 조개를 감상한 후에는 전망 타워로!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압권임
- 조개 전시관에서는 약 1,500품종, 1만점 이상의 세계의 조개를 전시하고 있음

(3) 특징

- 코우리섬을 둘러싼 투명한 블루와 에메랄드 그린의 그라데이션(gradation)한 바다와 섬 곳곳을 일망할 수 있는 전망 타워. 1만점 이상의 세계 조개 전시, 코우리섬 오리지널 잡화와 과자를 즐길 수 있음

7) 평화기념자료관(전적 국립공원)



(1) 운영현황

- 주소 : 이토만시 마부니 444

- 전화번호 : 098-997-3844
- 영업시간 : 견학 자유(자료관은 9:00~17:00, 상설 전시실은 16:30까지)
- 휴일 : 무휴(자료관은 월요일 휴관, 연말연시 휴일)
- 입장료 : 무료(자료관의 상설 전시실은 성인 300엔, 어린이 150엔/단체 성인 240엔, 소인 100엔)
- ※ 초등학교 미만과 위령의 날(6월 23일) 관람은 무료

(2) 개요

- 오키나와 전적 국립공원(일본어: 沖縄戦跡國定公園 おきなわせんせきこくていこうえん)은 일본 오키나와 현 오키나와 남단 부, 이토만 시와 시마지리 군 야에세정에 걸쳐있는 2차 세계 대전 (오키나와 전투)의 전쟁터와 자연 경관을 가진 국립공원임
- 오키나와전 종전의 땅에서 평화의 고귀함을 생각해 전사자 추모와 항구평화를 원하는 공원. 본섬 남부의 ‘오키나와전 종전의 땅’ 마부니에 위치해 험한 아름다운 해안선을 조망할 수 있는 대지에 있는 공원
- 오키나와 전적 국립공원에는 많은 위령 시설·기념비·위령탑이 있으며, 기념비·위령탑 수는 중요한 것만 100여점에 이름
  - 국립공원 내의 평화기념공원(平和祈念公園)이 잘 알려져 있음
  - 부지 안에 있는 평화 기념 자료관에서는 오키나와전에 관한 많은 자료가 상설 전시되고 있으며 전후부터 일본 복귀까지의 오키나와의 연혁에 대한 자료도 있음

(3) 특징

- 사진이나 유품 등을 전시한 평화 기념 자료관, 오키나와에서 숨진 모든 사람을 새긴 평화의 주춧돌, 진혼과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 기념상이 안치되어 있는 평화 기원도, 그리고 마부니 언덕에는 국립 오키나와전 전몰자 묘원이나 부현, 단체의 위령탑이 50기 건립되어 있음
- 국내외 관광객, 위령단, 수학여행 학생 등이 많이 찾는 성지이자 관광요소가 되었음

<표 5> 오키나와평화기념자료관 이용객 현황(2010년 이후)

(단위; 명)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이용객 수 | 404,850 | 386,177 | 372,129 | 373,361 |

자료 : 오키나와현 내부자료

<표 6> 기타 공영관광지 요금 및 이용객 현황(2010년 이후)

(단위; 엔, 명)

| 관광지               | 요금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識名園<br>(시키나엔)     | 대인 400<br>중학생 이하 200           | 75,764  | 69,182  | 82,562  | 81,578  |
| 王陵<br>(타마우둔)      | 대인 300<br>소인 150               | 72,130  | 74,299  | 78,866  | 71,186  |
| 齋場御嶽<br>(세화우타키)   | 대인 200<br>중학생 이하 100           | 330,403 | 350,776 | 417,770 | 434,297 |
| 今歸仁城跡<br>(나키진성터)  | 대인 400<br>고등학생 이하 300<br>유아 무료 | 240,111 | 249,426 | 249,930 | 181,191 |
| 勝連城跡<br>(카츠렌성터)   | 무료<br>해설사 이용<br>1,000엔         | 102,919 | 90,827  | 132,858 | 169,890 |
| 中城城跡<br>(나카구스쿠성터) | 대인 400<br>중학생 300<br>초등학생 200  | 87,836  | 80,677  | 87,687  | 117,343 |

자료 : 오키나와현 내부자료

### 3. 시사점

#### 1) 요금 보다는 관광지 경쟁력 제고가 더욱 중요

- 오키나와 공영관광지들의 요금과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츄라우미 수족관’과 ‘슈리성’이 여타 공영관광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용객 수는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는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의 상징성과 체험프로그램의 다양성 등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 따라서 대표 관광지로서의 상징성과 매력을 키우는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요금정책은 차선책으로 고려할 대상임

## 2) 역사 및 자연경관 관련 관광지는 입장료를 최소화

- 구 해군사령부 방공호와 평화기념공원, 시키나엔, 타마우둔 등 오키나와의 역사를 보여주는 관광지는 무료이거나 입장료를 최소화하여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또한 만좌모, 비세후쿠기가로수길 등 자연관광지의 경우도 대부분 무료로 개방되어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관람과 체험을 보장하고 있음

## 3) 시설형 관광지는 입장료를 징수

- 츠라우미 수족관(1,850엔), 슈리성(800엔), 코우리오션타워(800엔) 등 복원 또는 조성 및 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형 관광지는 역사 및 자연관광지에 비해 많은 입장료를 부과하여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4) 단순 관람과 가이드 서비스를 이원화

- 특이할 점은 ‘카츠렌성터’의 경우처럼 유적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면서도 해설사의 안내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1,000엔)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제주도에서도 지역주민 소득창출 차원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5) 오키나와 환경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지가 다수

- 오키나와 파인애플원, 아열대원, 국제해양환경정보센터, 츠라우미 수족관 등 오키나와의 아열대성 기후와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지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

## 6) 권역별로 쇼핑관광지를 조성

- 오키나와는 나하시내 권역에 국제거리(면세점 및 지역상권 공존), 남부권역에는 아시비나 아울렛(쇼핑과 식사 동시), 중부권역에는 아메리칸 빌리지(미국풍 상품) 등 특화된 쇼핑기반이 갖추어져 있어 관광을 하면서 쇼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7) 다양한 외국어 안내서 배치로 관광객 편의 제공

- 오키나와의 거의 모든 공영관광지는 영어는 물론 한국어, 중국어 등 오키



나와를 찾는 외국인관광객들이 편의를 위한 다국어 안내시스템을 잘 갖  
추고 있음